

비군인 참전 사실 입증해줘 유공자 유족 등록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6·25전쟁 노무자 참전기록 찾아내

노무자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1952년 12월 전사한 사망자의 유족이 '비군인으로 전사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유족 등록을 하지 못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으로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사자 장모씨(당시 38세)는 6·25 전쟁 당시 미3사단에서 노무자로 복무하다가 전사했고, 장씨의 유족은 2007년 5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1952.

12. 15. 연천지구에서 전사했다'는 통지를, 2011년 6월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참전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국가보훈처로부터는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받지 못했다.

국가보훈처는 고인의 군 기록과 고인이 연천지구에서 전사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육군본부에 요청했지만, 육군본부로부터 "고인은 비군인으로, 전사자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아 유족 등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족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중

양행정심판위원회는 전사자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육군본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행정처에 보관중인 고인의 전사상 심의의결서(1965. 5. 12.)와 고인의 처에게 발송된 전사확인증(1965. 5. 17.)을 확인해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는 ▲육군본부가 이미 1965년 5월에 고인의 처에게 전사확인증을 송부한 사실이 있고 ▲이를 근거로 육군본부가 2007년 유족에게 사망확인서도 통지해줬으며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참전사

실확인서에도 고인이 6·25 전쟁에 참전하였음을 통지해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음이 입증될 만하므로 보훈처가 장씨의 유족을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게 됐다.

직권조사까지 실시해 고인의 참전 입증기록을 찾아낸 중앙행정심판위는 "비록 비군인신분이어서 자료 확인이 어렵더라도 단지 군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그 유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을 계기로 관계기관들은 아직도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6·25 전쟁 유족, 특히 병적기록이 없는 노무자나 학도병같은 비군인 신분 전사자 유족의 아픔을 헤아려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생활개선회 연시총회 개최



생활개선 고성군연합회(회장 이순매)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농업인단체회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시총회를 열고 2011년도 활동평가와 2012년도 사업계획을 협의했다.

'찾아가는 컴퓨터 교실' 운영 마을별로 일정 인원 원하면 교육

고성군이 지난 13일부터 도시와 농어촌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총 5명으로 구성된 외부강사를 위촉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위촉된 외부 강사는 전현직 강사, 프로그래머, 컴퓨터 관련 업종 종사자 등으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컴퓨터 및 I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이스 피싱 예방법, 스마트 폰 등 최신 IT 트렌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단체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찾아가는 컴퓨터 교실'은 마을에서 일정 인원 이상이 교육을 원하면 컴퓨터, 책상 등 교육 장비를 마을에 설치하고 강사가 마을로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고성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전화 680-3461)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송훈석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속초시 교통에 소재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송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통합당이 정권을 잡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저는 오늘 우리지역의 지속적 발전과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19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3선의원의 풍부한 경륜과

"지역경제를 살릴 힘있는 일꾼"

민주통합당 송훈석 후보 제19대 총선 출마선언 기자회견

지식, 그리고 넓은 인맥이라는 큰 자산을 계속 활용해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며 "잘 달리는 말은 바꾸지 않는 법이다. 잘 달리는 말에는 더 잘 달리라고 채찍만 필요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저를 다시 뽑아주신다면 저는 이 지역 최초의 4선 의원으로서 더 큰 자산이 돼 지역 발전을 가속화시키겠으며,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돼 중 앙정치권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며 "다



민주통합당 송훈석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제19대 총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한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24시간 운영 ...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고성경찰서(서장 홍순광)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선거사범 단속 2단계 체제에 맞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서 홍순광

서장은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경찰의 공명선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토론회

헬로우TV와 영동CBS가 공동 주최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문헌 후보와 안종복 후보가 참석했으며, 손문영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원광연 기자



구독 및 광고문의

☎033-681-1666~7